

한국어의 의문사와 부정사의 긍·부정 극성 표현

—‘누구’와 ‘아무’를 중심으로

김서형*

|| 차례 ||

1. 머리말
2. 의문사의 미지칭과 미정칭 및 부정칭 기능
3. 의문사의 극성 표현(1): ‘의문사+ 보조사’
4. 의문사의 극성 표현(2): 의문사와 용언 활용형의 공기
5. 마무리

[국문초록]

한국어에서 의문사는 내용 의문문을 이루는 미지칭 기능 외에 미정칭과 부정칭으로도 쓰인다. 본고에서는 의문사에서 미지칭 기능이 기본이 되어 미정칭과 부정칭 기능으로 파생되는 근거를 여러 면에서 찾았다.

의문사는 미정칭으로서의 보조사 ‘나, 도, 든’ 그리고 ‘조차, 마저, 까지’ 등과 결합하여 부정칭 기능을 가져 부정뿐만 아니라 긍정의 ‘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문사 ‘누구’와 부정사 ‘아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극성 실현은 일반적인 명사가 아닌 부정칭 기능의 의문사와 부정사와의 결합에서만 가능하였다. 의문사는 역시 미정칭으로서 이들 보조사 외에 ‘-으나, -어도, -든, -든지,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되’ 등의 활용 어미를 가진 서술어와 공기하면서도 부정칭이 되어 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들 어미는 부정칭 의문사나 부정사가 아닌 일반적인 명사와 공기할 때에는 양보성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이처럼 극성 실현에 참여하는 보조사와 활용 어미는 그 형태가 상통한다.

주제어: 긍·부정 극성, 의문사, 미정칭, 미지칭, 부정칭, 부정사, ‘누구’, ‘아무’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aggeman@naver.com

1. 머리말

한국어에서 의문사들은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내용 의문을 나타내는 기능 외에 미정칭/미정사나 부정칭/부정사로서도 쓰이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정칭/미정사’와 ‘부정칭/부정사’의 명칭이나 개념 및 범위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의문사처럼 화자나 청자가 발화 내용에 등장하는 지시 대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화 과정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의문사는 미정칭과 부정칭의 기능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의문사의 본래 기능은 문장에서 쓰일 때에 그 표현을 내용 의문문으로 만드는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정도이지만, 의문사가 미정칭(未定稱)이나 부정칭(不定稱)으로 쓰일 때에는 좀 더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담화 표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의문사는 보조사와 결합한 형태를 갖거나 용언의 활용 어미 등과 공기하여 긍정(肯定)이나 부정(否定)의 극성(極性)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루기도 한다. 이때 의문사는 부정칭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먼저 본고에서는 의문사와 미정칭 그리고 부정칭과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극성을 가지게 되는지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의문사와 미정사, 부정사 등을 설정하고 이들 가운데 기본을 어느 것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본고에서도 이들 용어들의 체계와 상호 관계를 재검토하고, 이들이 의문사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예문들의 문법성은 모어 화자들의 인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만큼 부정칭의 용법이 현재 변화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한국어학 전공자들의 직관을 빌어 이 중 다수의 견해를 좇아 문법성 여부를 결정하였다.

2. 의문사의 미지칭과 미정칭 및 부정칭 기능

의문사는 대명사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관형사나 부사, 형용사 등도 있다. ‘누(구), 무엇, 어디, 얼마’는 의문 대명사이며, ‘무슨, 어느’는 의문 관형사, ‘왜, 어디, 언제, 얼마’는 의문 부사, ‘어떻게’는 형용사의 부사형이다. ‘어디’와 ‘얼마’는 대명사와 부사로 통용된다. 따라서 ‘의문사’는 하나의 문법 범주라기 보다 ‘의문’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 표현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된다. ‘의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묻는 문장 형식을 갖는데, 화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용 의문문이 되거나 가부 의문문이 된다.

- (1)ㄱ. 누가 왔니?
 ㄴ. 무엇을 먹었어?
 ㄷ. 어디에 갔어?
 ㄹ. 언제 갔어?
 ㅁ. 어떻게 갔어?
- (2)ㄱ. 누가 왔다.
 ㄴ. 나도 무엇을 좀 먹었다.
 ㄷ. 우리 언제 만나자.
 ㄹ. 어떤 사람이 왔어.
- (3)ㄱ. 누구나 와라.
 ㄴ. 나는 무엇도 보지 못했는데 ...
 ㄷ.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 (4)ㄱ. 아무나 와라.
 ㄴ.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
 ㄷ. 그의 태도가 아무렇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1)의 각 문장들은 모두 단순히 의문사가 가진 내용을 묻는 내용 의문문으로도 해석되고, 화제의 초점을 문장 끝의 서술어에 두어 가부 의문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는 모두 의문

사가 가진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 의문문을 이룰 수 있지만, 또한 의문사의 내용을 밝혀려는 의도 없이 서술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만 초점을 두는 가부 의문문을 이루기도 한다. (1)의 각 문장이 나타내는 이러한 두 가지 의문 형태에서 의문사는 그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가 없다. 두 가지 의문문 중 전자에서의 의문사는 현재 알고 있지 못하는 지칭 대상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미지칭(未知稱)’의 성격이고, 후자에서의 의문사는 지칭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하다는 지정을 보류한 채 그 다음에 오는 서술어의 내용에 의문을 갖는 ‘미정칭(未定稱)’의 성격이다.

(2)에서 의문사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도 역시 의문의 기능이 없이 지칭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내지 않아 ‘미정칭’이 된다. 그러나 (3)에서는 의문사 ‘누구나, 무엇도, 어떻게’가 의문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 (2)의 미정칭과 달리 한정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不定稱)’ 기능을 한다.¹⁾ (3)에서의 기능은 (4)에서 ‘아무나, 아무것도, 아무렇게’와 같은 ‘부정사(不定詞)’와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미정칭’에 대해 ‘미지칭’이나 ‘미정사’ 등의 용어를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으나, 어휘 의미로 볼 때에도 ‘미지’와 ‘미정’은 별개로 사용되어야 한다. ‘미지칭/미정칭/미정사’, ‘부정칭/부정사’의 명칭이나 개념에서도 다소 견해들을 달리하고 있다. 위의 (1)에서 의문사의 ‘미지칭’과 함께 있는 또 다른 기능인 ‘미정칭’도 ‘미정칭/미정사’가 아닌 ‘부정칭/부정사’로 이름 하기도 하는데, 최현배(1961), 김충효(1992), 이규호(2017) 등에서는 미정사와 부정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부정사’로 일괄하고 있다. 양명희(2005)는 언어학 일반에서의 infinitive와 혼동을 피해 ‘부정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 ‘미지칭/미정칭’과 ‘미정사’, ‘부정칭’과 ‘부정사’와 같이 이들의 명칭에도 차이가 있다. 이들이 모두 ‘의문사’가 갖는 기능들이므로 의문사와 같은 계열의 명칭보다 ‘미지칭, 미정칭, 부정칭’으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위의 (3)에서 의문사들은, 의문사에서 파생하지 않은 부정사 ‘아무나, 아무도, 아무렇게’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지만, (4)에 있는 원래부터의 부정사와 구분하여 본고에서는 앞으로 이들을 모두 ‘부정칭’이라 이름하기로 한다. 그러나 의문사의 부정칭과 원래부터의 부정사를 함께 아울러 설명할 때에는 편의상 ‘부정사’ 하나로 쓰기도 한다.

김미형(1994)은 ‘미정칭’과 ‘부정칭’으로, 이금희(2013)은 ‘미지칭’과 ‘부정칭’으로 나누었고, 서정목(1985)과 박진희(2002)는 이 모두를 ‘미정사’로 보았다. 이에 관해서 고영근·구본관(2008: 74)에서는, ‘미지칭’은 ‘가리킴을 받는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사용한다’라 하고, ‘부정칭’은 ‘지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미지칭’은 의문사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 즉 ‘의문’ 기능의 용법이고, ‘부정칭’은 의문의 의미를 가지지 않은 용법을 가리킨다. 이에 따르면 ‘미지칭’은 본고의 용어와 개념에서 일치하는데, 본고에서의 ‘미정칭’과 ‘부정칭’을 모두 ‘부정칭’이라 본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의문사는 적어도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적절할 것이다. 첫째, 의문사 본래의 기능인 ‘의문’으로, 의문사가 문장에서 이와 같이 쓰일 때엔 언제나 내용 의문문을 이루는 ‘미지칭’이다. 둘째, 미정칭의 기능으로 실현될 때에는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등 모든 문장 유형에서 가능하며, 이때의 의문문은 가부 의문문이 된다. 셋째, 부정칭의 기능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막연하거나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은 용법’이다. 이 부정칭은 보조사 ‘나, 도, 든’과 같이 사용하거나 서술어를 이루는 일부 양보성 어미와 공기하면서 기능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이 부정칭 용법에 대해 집중하여 고찰할 것이다.

의문사의 미지사/미지칭, 미정사/미정칭, 그리고 부정사/부정칭으로 나누어진 각 기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기본이 되어 다른 기능을 파생시키는가?²⁾ 최현배(1937/1971)에서 ‘의문 대명사’를 ‘부정 대명사’의 일부로 본 이후 한국어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부정사가 이들 가운데 기본이 되고 의문사는 부정사의 하위 범주로 이해되어 학교 문법이나 김영희(1975) 등에서 이를 따르기도 했다. 한편 서정목(1987)은 미정사가 초점 표시되면 의문 자질을 얻어 의문사가 된다고 보고, 박진희(2002)도 의문사나 부정사를 미정사의 하위 범주로 보았다. 김미형(1994)은 부정칭 범주 안에서 다시 부정칭과 미지칭으로 하위 구분을 하였고, 의문사는 미지칭의 한 용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김

2) 이 단락에서는 각 연구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광해(1983)은 ‘미지, 미정, 부정’을 ‘의문사’ 하나로 간편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서정수(1989)도 의문사가 간접 의문문에서 부정사로 쓰이는 점을 들어 의문사가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통시적으로 부정사보다 의문사가 앞섬을 밝힌 김충효(1992)도 의문사를 기본으로 보았다.³⁾ 이은섭(2003)은 의문사를 기본으로 보되 부정사와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충효(1992: 4)에 의하면 이러한 의문사 위주의 견해는 일찍이 Rosny(1864-1866)에서 비롯되어, 주시경, 박승빈, 홍기문 등으로 이어졌으나 최현배(1937)의 영향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의문 대명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초기에는 미정사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의문사와 부정사의 기능이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의문사가 오랜 동안 쓰여 오다가 근대 국어 후반에 들어 미정사의 용법이 나타났다는 역사성이 밝혀지면서(김충효 1992), 의문사를 기본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의문사의 미지칭이 미지칭이나 부정칭보다 기본이 된다는 것은 이 외에 공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방증할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근거를 더 들기로 한다.

우선 미지칭은 미정칭이나 부정칭보다 보편적 언어 특성이라는 점이다. 의문사는 여러 언어에서 관계 대명사로도 사용되고, 또한 여러 언어에서 부정 대명사로도 사용되는데,⁴⁾ 의문사의 미지칭이 없는 언어는 없다. 둘째, 미정칭이나 부정칭에 비해 미지칭이 더 널리 쓰이며 종류도 많다. 가령 ‘왜’는 미정칭이나 부정칭으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직접 의문이든 간접 의문이든 오로지 미지칭으로만 쓰인다.⁵⁾ 이에 반해 미정칭이나 부정칭으로 쓰이면서 미지칭이 불가능한 의문사는 없다. 셋째, 의문사의 미지칭에서 미정칭이나 부정칭으로의 의미 기능 파생이, 미정칭이나 부정칭에서 미지칭으로의 파생보다 쉽다.

3) 김충효(1992)에서는, 18세기 말 간접의문문의 단계를 거쳐 의문사에서 부정사(미정사)의 기능이 분화되었다고 하였다.

4) Peter Siemund(2001)에선 영어 등 여러 언어에서 의문사가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며,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등에선 의문사가 부정 대명사로도 사용됨을 말하였다.

5) “왜 그 친구가 왔어?” 이조를 가진 표현에서는, ‘왜’가 미정칭으로 쓰였다기보다 두 개의 문장/발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지칭과 미정칭 그리고 부정칭 모두 지시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데, 여기에 ‘의문’ 요소가 덧붙는 미지칭 의문사로의 파생 기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넷째, 부정칭은 일부 특정 보조사가 결합하든가 일부 활용 어미 형태의 서술어와 공기하여서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미지칭과 미정칭은 모든 격조사나 보조사와 결합하고 다양한 활용 어미 형태의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다섯째, 미지칭에는 강세 억양이 없으나, 미정칭과 부정칭에는 강세 억양이 놓이지 못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근거를 보아도, 의문사의 본래 기능은 미지칭이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미정칭이나 부정칭이 파생된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의문사의 극성 표현(1): ‘의문사+ 보조사’

한국어에는 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 실현된다. 대표적인 것이 극어라고 일컬어지는 부사이다.

- (5)ㄱ. 철수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 ㄴ. 철수는 결코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6)ㄱ. 철수는 그것만은 절대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 ㄴ. 철수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팠다.

(5)에서 ‘절대로’와 ‘결코’는 부정적인 표현에 극성을 더하는 경우가 많아 흔히 ‘부정 극어’라고 불린다(고영근·구본관 2008). 그런데 (6)에서 보듯이 ‘절대로, 아무리’ 등이 ‘긍정 극어’로도 쓰인다. 한국어학계에서는 그동안 부정 극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이환목 1977, 서정수 1994, 시정곤 1997, 김영희 1998, 구종남 2005, 김의수 2007 등), 긍정적인 표현에서 나타나는 극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고, 최근 이규호(2017: 168)에서 이를 ‘전칭 긍정’이라 언급하고 있다.

‘극어’나 ‘극성’의 개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부정 요소가 나타나는

문장에서 부정 요소에 의한 부정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나 구'라고 부정 극어를 정의한 김영희(1998: 264)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나 구'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극어'나 '극성'을, 글자 그대로의 뜻에 따라 그러한 속성에서 어긋나거나 부족하거나 반대되는 예가 하나도 없는 최고이거나 유일한 것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극'에 이를 만큼 극단적인 속성이나 모양 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위 '극어, 극성'을 일상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의 개념으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한다.

극성 표현은 (5)에서와 같이 부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장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처럼 부정사 참여에 의한 실현을 들 수 있는데 긍정 극성이나 부정 극성 표현이 모두 비교적 잘 실현된다.

- (6)ㄱ. 누구나 그 일은 하고 싶어 하겠지.
 ㄴ. 누구나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7)ㄱ. ?아무나 그 일은 하고 싶어 하겠지.
 ㄴ. 아무나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6)에서 의문사의 부정칭 '누구나'는 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표현 (6ㄱ)이나 부정적인 표현 (6ㄴ)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극성의 실현은 의문사가 부정칭 기능을 보일 때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극성을 보이는 (7)에서는 '아무나'가 (7ㄴ)은 가능하지만 (7ㄱ)은 다소 제약된다.⁶⁾ 이는, (6)과 (7)이 언뜻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인 듯하지만, 특정인/집단의 의도성을 나타내는 '하고 싶-'이란 표현에서는 주체가 막연하거나 모호한 부정사 '아무나'와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에 (7ㄱ)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여기에서 '누구나'와 '아무나'는 차이를 갖는다. 둘 다 부정사 기능을 하지만, 의문사에서 파생한 부정칭 '누구나'는 본래부터 부정사인 '아무나'보다 지시체의 구체성이 훨씬 더 높다

6) 익명의 심사자는 '아무나'도 '아무나 그 일은 할 수 있다.'처럼 긍정적인 극어 표현에서도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아무나'는 다만 '-고 싶-'과 같은 의도성 표현에서 어색해진다.

고 할 것이다. 이는 아무래도 의문사보다는 부정사가 좀 더 막연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6)과 (7)의 발화 상황을 예상해 보자. 어떠한 세 사람에 대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특정인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모호하지는 않은 주체에 대해서 (6ㄱ, ㄴ)처럼 ‘누구나’는 쓸 수가 있지만 (7ㄱ)과 같이 ‘아무나’는 잘 쓰지 않는다. 위의 (6)과 (7)은 모두 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래의 표현에서도 뚜렷하다.

- (8)ㄱ. 누구나 간다/가라.
- ㄴ. 누구나 안 간다./가지 마라.
- (9)ㄱ. 아무나 간다/가라.
- ㄴ. 아무나 안 간다./가지 마라.
- (10)ㄱ. (*)누구나 가니?
- ㄴ. (*)누구나 안 가니?
- (11)ㄱ. 아무나 가니?
- ㄴ. 아무나 안 가니?

부정칭으로 쓰인 (8)과 부정사 (9)의 ‘누구나’와 ‘아무나’는 긍정문이나 부정문에서 모두 문법적이다. 그런데 (10)의 문장에서 ‘누구나’가 부정칭으로 기능할 때에는 문법적이지만, 만약 ‘누구나’에 초점을 두어서 부정칭이 아닌 미지칭으로 쓰인 내용 의문문으로 상정한다면 (10)의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지칭으로는 기능하지 않는 부정사 ‘아무나’가 쓰인 (11)은 긍·부정 의문문이 모두 언제나 가능하다.

이처럼 의문사나 부정사는 보조사 ‘나’와 결합하여 부정칭/부정사로 쓰이며, 이때 이들은 다 긍정 또는 부정의 극성을 가진다. 이는 의문사에 보조사 ‘나’가 결합하면 미지칭 기능을 하지 못함을 뜻하며, 의문 대명사가 혼자서 부정칭 기능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 ‘나’와의 결합에 의해 부정칭이 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이때 의문사는 미지칭에서 곧바로 부정칭이 되기보다 미정칭이 된 의문사가 보조사 ‘나’를 만나 부정칭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8)과 (10)이 의문문이 아니라 ‘누(구)가 간다.’와 같은 평서문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의문사는 미정칭이기 때문이다. 흔히 부정사가 부

정의 극어로만 언급되기도 하지만 (8)~(10)에서 보듯이 부정사는 긍정의 극어로도 얼마든지 쓰인다.

그렇지만 미정칭이나 부정사가 아닌 명사나 대명사는 이러한 기능을 가질 수 없다.

- (12)ㄱ. 영이나/친구나/너나 간다/가라.
 ㄴ. 영이나/친구나/너나 안 간다/가지 마라.
 (13)ㄱ. 누구/어느/아무 친구나 간다/가라.
 ㄴ. 누구/어느/아무 친구나 안 간다/가지 마라.

(12)에서 특정한 지시 대상을 나타내는 ‘영이나, 친구나, 너나’는 미정칭이나 부정칭으로 쓰일 수가 없으며 극성을 띠 수도 없다. (6)~(10)에서 보조사 ‘나’와 결합한 의문사 ‘누구’와 부정사 ‘아무’는 모두 부정사로 기능하면서 긍정 또는 부정의 극성을 띠었지만, (12)의 주어는 미정칭이나 부정칭 또는 부정사가 아닌 (대)명사이어서 보조사 ‘나’와 결합해도 단독으로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미정칭 기능을 하게 된 의문사 ‘누구/어느’나 부정사 ‘아무’의 한정성을 받는 일반 명사 ‘친구’는 (13)에서 한정적으로 극성을 나타낸다. ‘친구’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극성인 것이다.⁷⁾ 따라서 극성을 갖는 표현은 일반 명사가 아닌 의문사의 미정칭이나 부정사가 보조사 ‘나’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정사 구문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부정칭/부정사와 보조사 ‘나’의 결합은 (13)처럼 불연속 구조이어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부분 극성 또는 한정 극성의 성격을 갖는다.⁸⁾

아래는 보조사 ‘도’나 ‘든(지)’가 결합하여 부정칭/부정사가 된 표현으로, 역시 극성을 보이고 있다.

7) 이럴 경우 본고에서는 이를 ‘부분 극성’ 또는 ‘한정 극성’이라 이름하기로 한다.
 8) 단어 형성에서 이른바 불연속 형태소를 설정할 수 있듯이, 의문사의 부정칭이나 부정사가 단어 경계를 넘어서 보조사 ‘나’와 호응하며 부정사 기능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 (14)ㄱ. ?누구도/누구든(지) 간다/가라.
 ㄴ. 누구도/누구든(지) 안 간다/가지 마라.
- (15)ㄱ. *아무도/아무든(지) 간다/가라
 ㄴ. 아무도/아무든(지) 안 간다/가지 마라.
- (16)ㄱ. ?누구/?어느/*아무 친구도 간다/가라.
 ㄴ. ?누구/어느/아무 친구도 안 간다/가지 마라.
 ㄷ. 누구/어느/아무 친구든 간다/가라/안 간다/가지 마라.

그런데 (14ㄱ)에서 ‘누구든(지)’는 자연스럽지만 ‘누구도’가 부정칭으로 쓰인 것이라면 다소 어색하고, (15ㄱ)의 ‘아무도’에서는 비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불연속 형태인 (16ㄱ)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보조사가 ‘도’가 아닌 ‘든(지)’라면 (14ㄱ)이든 불연속 형태인 (16ㄷ)이든 다 자연스럽다. 같은 부정사로 쓰였더라도 (8)과 (9), (13), (16ㄷ)에선 긍정이나 부정 모두에서 문법적이었다. 결국 이들 부정사의 극성 실현 범위는 ‘누구, 아무’와 그에 결합하는 보조사 ‘나, 도, 든(지)’ 등이 함께 작용하며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사로서 극성의 정도성에서 ‘아무도’가 가장 높으며, 의문사에서 온 부정칭 중에서는 ‘든(지)’ 결합형보다는 ‘나’ 결합형에서, ‘나’ 결합형보다는 ‘도’ 결합형에서 극성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극성이 높을수록 긍정문에서 비문이 많이 발생한다. 극성의 표현은 긍정문보다는 부정문에서 더 발달되어 있고, 더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도 위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다.

- (17)ㄱ. 어느 누구나 간다/가라/안 간다.
 ㄴ. *어느 아무나 간다/가라/안 간다.
 ㄷ. 어느 신사나/*철수나 간다/가라/안 간다.

(17ㄱ)에는 ‘어느’가 ‘누구나’ 앞에 와서 극성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느’와 ‘누구’는 둘 다 미정칭의 의문사이다. 그러나 (17ㄴ)처럼 ‘어느’는 ‘아무나’ 앞에 올 수가 없다. ‘어느’는 ‘선택’이나 ‘지정’ 등 제한을 두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미 그 자체가 부정사인 ‘아무’ 앞에 놓일 수가 없다. 이에 비해 (17ㄱ)의 ‘누구나’에서 ‘누구’는 아직 미정칭의 성격

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앞에 ‘어느’가 올 수 있다.(예: ‘어느 누구를, 어느 누구에게’ 등) 미정칭 ‘누구’는 그 아래에 보조사 ‘나’나 ‘도’가 결합해서 비로소 부정칭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는 선택이나 제한을 나타내므로 (17ㄷ)에서 일반 명사인 ‘신사’에서는 가능하나 고유 명사 ‘철수’ 앞에도 올 수 없다.

- (18)ㄱ. 누구라도 간다/가라.
- ㄴ. 아무라도 간다/가라.
- ㄷ. 누구라도/아무라도 안 간다/가지 마라.
- ㄹ. 누구라도/아무라도 가니?
- (19)ㄱ. 누구일지라도/아무일지라도 간다./가라./안 간다./가지 마라./가니?
- ㄴ. 누구이더라도/아무이더라도 간다./가라./안 간다./가지 마라./가니?

(14ㄱ)과 (15ㄱ)에서 ‘누구도’와 ‘아무도’가 긍정문에서 쓰였을 때 비문이었던 것과 달리 (18)에서 ‘누구라도’와 ‘아무라도’는 이들이 부정사임에도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어디에서도 아주 자연스럽다. 이는 (19)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체언에 직접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보다 ‘라도<이라도’처럼 일단 서술성을 더한 체언은⁹⁾ 그에 대한 서술어와 좀 더 쉽게 호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뒤에 나오는 예문 (27)에서도 볼 수 있다.

‘누구’나 ‘아무’와 공기하여 극성을 나타내는 보조사 ‘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보조사에 ‘조차, 마저, 까지’ 등이 있다.

- (20)ㄱ. *누구조차/*누구마저/*누구까지 간다./가라./안 간다./가니?
- ㄴ. *아무조차/*아무마저/*아무까지 간다./가라./안 간다./가니?
- (21)ㄱ. 어느 누구조차/누구마저/누구까지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 ㄴ. 철수조차/철수마저/철수까지 간다./가라./안 간다./가니?
- (22)ㄱ. 아무 사람조차/사람마저/사람까지 오지 않았다.
- ㄴ. 그는 아무 옷조차/옷마저/옷까지 입지를 못했다.

9) ‘누구도, 아무도’와 ‘누구라도, 아무라도’는 모두 체언에 조사를 바로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라도’ 즉 ‘이라도’는 서술격 조사 ‘이다’ 아래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선행하는 체언에 서술성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23) 아무개조차/아무개마저/아무개까지 간다./가라./가니?

(20)에서 ‘누구’와 ‘아무’가 보조사 ‘조차, 마저, 까지’와 결합하여 부정칭/부정사로 해석되는 문장이라면 비문이다. 대신에 (21ㄱ)에서는 미정칭 기능을 하는 의문사 ‘어느’가 앞에서 함께 쓰이면서 ‘누구조차, 누구마저, 누구까지’로 표현된다면 부정칭을 이루어 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의 (17ㄱ)에서 미정칭 의문사 앞에 미정칭의 의문사 ‘어느’가 쓰여 극성을 더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22)에서 ‘아무’는 불연속 형태로 관형사적인 기능을 하면서 조금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이룬다.¹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라 뜻풀이를 하였고, ‘마저’에도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하나 남은 마지막만을 나타낸다.’라 풀이말을 주었다. ‘까지’에도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와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조차, 마저, 까지’ 모두가 극성적인 성격이 있음을 뜻풀이에서 각각 말하고 있다. (21ㄱ)과 (22)에서 이 보조사들은 ‘나’나 ‘도’보다 더욱 강조된 의미를 보인다.

이 보조사들도 부정칭/부정사가 아닌 일반 명사와의 결합에서는 (21ㄴ)에서 보듯이 ‘더함’을 강조할 뿐 극성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또한 (23)에서 보듯이 ‘아무개’가 되면 이미 부정사 기능을 잃는다. ‘김 아무개, 이 아무개’에서 ‘아무개’는 부정사가 아니며, 미정사에 근접하기는 하나 일반 명사이다.

극성 표현은 주어 외에도 목적어나 부사어 등에 쓰인 부정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24)ㄱ. 철수는 누구나/누구도 만났다.

10) (21ㄱ)과 (22ㄱ)의 표현이 다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조차, 마저, 까지’가 어떠한 범위를 강하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칭이나 부정사와 공기하기가 자연스럽게 못한 듯하다. 이런 이유로 보조사 ‘밖’은 공기가 더욱 제약된다.

- ㄴ. 철수는 누구에게나/누구에게도 환영을 받는다.
- (25)ㄱ. 철수는 아무나/*아무도 만났다.
- ㄴ. 철수는 아무에게나/아무에게도 환영을 받는다.
- (26)ㄱ. 철수는 누구나/누구도 안 만났다.
- ㄴ. 철수는 아무나/아무도 안 만났다.

(24ㄱ)과 (25ㄱ)에서는 목적어에, (24ㄴ)과 (25ㄴ)에서는 부사어에 극성이 실현되어 있다. 이는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모두에서 다 가능하다. 다만 (15ㄱ)에서처럼 ‘아무도’는 긍정문에서 제약되었다. 이로써 부정사가 보조사 ‘나’나 ‘도’와 결합하여 이루는 극성 표현의 양상은 부정칭/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이루는 성분에 관계없이 실현 양상이 공통됨을 알 수 있다.

의문사에서 ‘누구’ 외에도 ‘무엇’이나 ‘언제, 어디’ 등도 보조사 ‘나, 도, 든’ 등과 결합하여 ‘누구’와 비슷하게 극성을 나타내지만 본고에서는 ‘누구’만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논의하였다. 그러나 모든 의문사가 부정칭 기능을 가지면서 극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가령 ‘얼마’는 ‘든’과 결합하면 극성에 가까운 의미를 갖지만, ‘나’나 ‘도’와 직접 결합하여 극성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4. 의문사의 극성 표현(2): 의문사와 용언 활용형의 공기

의문사의 극성 표현은, 보조사 ‘나, 도, 든’과의 결합 외에도 부정사가 양보성 의미를 가진 활용 어미와 공기하면서도 실현될 수 있다.

- (27)ㄱ. 누가 가나/가도/가든(지)/간들/가더라도/갈지라도/가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 ㄴ. 아무가 가나/가도/가든(지)/간들/가더라도/갈지라도/가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 (28)ㄱ. 누가 가나/가도/가든(지)/간들/가더라도/갈지라도/가되 그를 못 만날 것이다.
- ㄴ. 아무가 가나/가도/가든(지)/간들/가더라도/갈지라도/가되 그를 못

만날 것이다.

(27ㄱ)에서 의문사 ‘누가’는 ‘-으나, -어도, -든, -든지,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되’라는 활용 어미가 결합된 서술어와 공기하면 부정칭으로 기능하면서 극성 표현을 이루었고, (27ㄴ)은 원래부터의 부정사 ‘아무가’가 이들 활용 어미들과 공기하며 극성 표현이 되었다. 이는 (28)처럼 뒤에 오는 절(문장)이 부정문인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극성 표현에 쓰인 이들 활용 어미들은 모두 종속 접속 어미이므로 후행하는 구절의 종류나 성격이 이들 선행 절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쓰인 활용 어미는 보조사 ‘나, 도, 든’과 형태들이 거의 공통되고 있다. 이는 위의 보조사와 활용 어미가 공통의 기원성을 갖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관해서는 좀 더 본격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또한 극성 표현의 기능은 위의 활용 어미나 보조사에서 비롯됨을 말해 준다. 다만 일반적인 명사에서는 이들 활용 어미나 보조사가 결합되어도 극성이 잘 실현되지 않고 의문사와 부정사에서 극성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의문사와 부정사가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위의 예문을 보면 극성의 의미 기능을 실현할 때 이들 보조사나 활용 어미들의 참여 정도가 매우 높고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서술어의 활용 어미와 공기하면서 이루어지는 극성 표현을 보면, ‘아무가’가 부정문은 물론 긍정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이는 앞의 (14ㄱ), (15ㄱ), (16ㄱ)에서 ‘아무도’가 이루는 비문이 서술성을 더한 ‘아무라도’로 표현된 (18)과 (19)에서는 문법적이 되는 원리와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부정사가 서술성이 높은 표현을 만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문법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정사나 의문사의 미정칭이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 문장에서도 극성 실현은 같은 양상을 보인다.

(29)ㄱ. 철수는 누구를 만나나/만나도/만나든/만난들/만나되 친절하였다.

ㄴ. 철수는 아무를 만나나/만나도/만나든/만난들/만나되 친절하였다.

(30)ㄱ. 철수는 책을 누구에게 주나/주어도/주든/준들/?주되 좋다고 하였다.

ㄴ. 철수는 책을 아무에게 주나/주어도/주든/준들/?주되 좋다고 하였다.

미정칭이나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인 (29)와 부사어로 쓰인 (30)에서도 활용 어미 ‘-으나, -어도, -든, -은들’이 있는 서술어와 함께 이들이 부정칭/부정사가 되어 모든 문장들이 다 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역시 미정칭/부정사가 아닌 대명사나 명사는 극성 표현을 이루지 못한다.

(31)ㄱ. 철수가/그가 가나/가도/가든/간들/가더라도/갈지라도/가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ㄴ. 철수가/그가 가나/가도/가든/간들/가더라도/갈지라도/가되 그녀를 못 만날 것이다.

미정칭/부정사가 아닌 ‘철수가, 그가’는 (29)와 (30)에서 극성 표현에 기여한 ‘-으나, -어도, -든, -은들, -되’ 등이 공기하였으나 (31)에서 양보성 표현이 될 뿐 극성까지는 나타내지 못하였다. ‘-지만’은 ‘-으나, -어도, -든, -은들, -되’와 비슷하게 양보성 의미를 가졌지만 극성을 표현하지 못한다.

(32)ㄱ. 철수는 누구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ㄴ. 철수는 지금 누구를 만나되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ㄷ. 철수는 지금 누구를 만나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33)ㄱ. *철수는 아무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ㄴ. 철수는 아무개를 만나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지만’은 (32ㄱ)에서 미정칭 의문사 ‘누구를’을 부정칭으로 이끌지 못하고, (33ㄱ)에선 비문이 되고 만다. ‘-지만’은 앞뒤 절의 역접 관계를 주로 보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33ㄴ)에서처럼 ‘아무를’을 ‘아무개를’로 바꾸면 부정사가 일반 명사로 바뀌어 극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되’와 ‘-나’가 쓰인 (32ㄴ)과 (32ㄷ)에서는 ‘누구를’이 양보성 의미를 나타낼 뿐 극성에까지는 이르

지 못한다. 이들 ‘-되’와 ‘-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27)~(30)에서와는 다르게 (32ㄱ)의 ‘-지만’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이다. 만약 (32ㄴ)과 (32ㄷ)에서 ‘누구를’에 좀 더 강세를 주어 말하면 이들에서도 극성이 나타난다. 이처럼 부정사와 공기하며 사용되어 극성을 실현시키는 보조사나 용언의 활용 어미들은, 부정사가 아닌 일반 명사들과 함께 쓰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극성보다는 양보성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기여한다.

5. 마무리

한국어에서 의문사는 문장 중에 쓰여 내용 의문문을 만드는 1차적인 ‘의문’ 기능인 ‘미지칭’ 외에 미정칭과 부정칭으로도 쓰인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미지칭과 미정칭 그리고 미정사와 부정사 등의 용어를 연구자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여 사용해 왔는데, 의문사가 갖는 기능으로 ‘미지칭, 미정칭, 부정칭’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문사와 미정사 그리고 부정사로 나뉘는 가운데 어떤 것이 기본인가에 대해 여러 견해를 보여 왔는데, 본고에서는 의문사의 미지칭을 기본으로 하여 미정칭과 부정칭으로 기능이 파생되는 근거를 여러 면에서 찾았다.

의문사는 미정칭으로서 일부 보조사와 결합하거나 일부 연결 어미와 공기하며 부정칭으로 기능하여 긍정이나 부정의 ‘극성’을 나타낸다. 그 대표적인 보조사는 ‘나, 도, 든(지)’이며 ‘조차, 마저, 까지’도 강조적으로 이러한 기능 표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극성의 실현은 일반적인 명사가 아닌 의문사의 미정칭이나 부정사와의 결합에서만 가능하다. 의문사는 역시 미정칭으로 기능하면서 이들 보조사 외에 ‘-으나, -어도, -든, -든지, -은들, -더라도, -을지라도, -되’ 등의 활용 어미를 가진 서술어와 공기하면서도 부정칭이 되어 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들 어미는 미정칭 의문사나 부정사가 아닌 일반적인 명사와 공기할 때에는 양보성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이처럼 극성 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보조사와 양보성 활용 어미들은 그 형태가 상통한다.

이 글에서는 부정칭으로 쓰인 미정칭 의문사 ‘누구’와 원래부터 부정사인 ‘아무’를 중심으로 그들이 나타내는 극성 표현만을 살펴보았다. ‘누구’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 의문사들 가령 ‘무엇, 언제, 어디’ 등도 ‘나’나 ‘도’ 등과 결합하거나, 양보성 연결 어미 형태의 서술어와 공기하면서 부정칭이 되어 극성 표현을 이룰 수 있다. 그 양상은 ‘누구’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ABSTRACT]

Positive · Negative Polarity Expressions of Interrogatives and
Indefinite words in Korean
—Focused on ‘nugu’ and ‘amu’

Kim, Seohyung
Kyunggi Univ

In Korean, interrogatives is also used as undetermines and indefinitives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unknowns that represents the question and constitutes the content question sentence. In this paper, I have found in many ways the grounds of unknowns in interrogatives, which are derived as undetermines and indefinitives. It can be said that interrogatives can be expressed meaning positive and negative polarities by having the function of indefinitives in combination with auxiliary particles ‘na, do, deun’ and ‘jocha, majeo, kkaji’ as undetermines. I looked at this trough interrogatives ‘nugu’ and indefinite words ‘amu’ among interrogatives. The realization of this polarity is possible only in the conjunction of interrogatives and infinitives in the function of interrogatives, not a general noun. In addition to these auxiliary particles, interrogatives has also the function of indefinitives when doing co-occurrence with verbal endings, ‘-euna, -eodo, -deun, -deunji, -eundeul, -deorado, -euljirado, -doe’ , and interrogatives can express polarity as like as the fuction of indefinitives. These verbal endings only express concessions when doing co-occurrence with common nouns, not indefinitives or interrogatives. This type of auxiliary participates in the realization of the polarity and the these ending forms are common.

key words: Positive-negative Polarities, Interrogative, Undetermines, Unknowns, Indefinitives, Indefinite Word, ‘nugu’, ‘amu’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 구종남, 『국어의 부정국어』, 경진, 2012.
- 구종남, 「'아무'의 형태, 통사, 의미에 대하여」, 『언어학』 23-3, 대한언어학회, 2015, 85-107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 김광해, 「국어의 의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12, 국어학회, 1983, 101-136면.
- 김미형, 「부정칭 대명사와 미지칭 대명사」, 『한국학논집』 24,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4, 237-253면.
- 김영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문사 어휘 정보와 교수 방법 연구」, 상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영태, 「부정 극성어의 허가 양상」, 『한글』 240, 한글학회, 1998, 263-298면.
- 김의수, 「한국어의 부정 극성 용언을 찾아서」,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 7-49면.
- 김충효, 「국어의 의문사와 부정사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박진희, 「국어 미지칭사에 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서정목, 『국어 의문문 연구』 탐출판사, 1987.
- 서정수, 「물음말과 부정사」, 『이혜숙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한신문화사, 1989.
- 송경안·이기갑, 『언어유형론』, 월인, 2008.
- 시정곤, 「국어의 부정 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1997, 49-78면.
- 양명희, 「국어 부정칭의 의미」, 『우리말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2005.
- 이금희, 「국어 부정칭 표현 '아무' 계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 변화」,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57-85면.
- 어수진, 「부정칭대명사와 특수조사의 호응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9, 한국어문학연구회, 2009, 163-178면.
- 이규호, 「의문사와 부정사의 의미와 용법」, 『국어학』 82, 국어학회, 2017, 153-179면.
- 이동규, 「'아무+(N)(이)나'와 'N+든지'의 효과적인 제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35, 이중언어학회, 2007, 227-249면.
- 이은섭, 「현대 국어 의문사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환목, 「국어 극어와 화용상의 가정」, 『어학연구』 13-2,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7, 115-127면.
- 임은영, 「한국어와 영어의 의문문 대조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조용림·백낙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인간의 현대어 풀이 비교 연구」, 『국제언어문학』 32, 국제언어문학회, 2015, 87-115면.

최기영, 「의문사와 부정사에 관한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 1971.

Siemund, Peter, “Interrogative constructions.” in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Vol. 2), (Edited by M. Haspelmath, E. König, W. Oesterreicher, W. Raibl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1, pp.1010-1028.

이 논문은 2018년 3월 27일 접수되어 4월 22일까지 심사받아 4월 23일 게재 확정됨.

